

문화



예술의 거리에서 10월 한달간 문화난장이 펼쳐진다. 지난 9일 열린 프린지 페스티벌 모습.

예술의 거리에서 만나는 문화난장

‘공동예술제’ ‘아트로드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그램 관객 기다려

‘예술의 거리로 놀러오세요.’ 인적이 뜸했던 광주 공동 예술의 거리에서 문화난장이 펼쳐진다.

10월 초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아트로드 프로젝트의 대체로운 프로그램이 12월말까지 계속되며 15~25일까지는 ‘공동거리예술제’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예술제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7개 갤러리에서는 ‘현화가-공동 제너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린다. 눈에 띄는 건 주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배동신 회고전’이다. 광주 출신으로 한국 화단의 수채화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그의 작품은 은은히 퍼지는 수채화 물감처럼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 30여점과 작가가 생전에 사용했던 화구 등을 선보인다.

‘현화! 예술의 거리 아카이브 전’은 예술의 거리의 ‘역사’를 전시하는 작업이다. 예술의 거리 터줏대감들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예술의 거리를 대표하는 골동품, 표구, 화방, 화랑, 서점의 역사를 ‘재미있게’ 정리했다.

‘화랑 It’전은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각 화랑의 전속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갤러리 자

리아트(박상화·백애경·송필용·신호윤·장현우·주미희), 상계갤러리(김영환·박은수·심유진·안태영·이승대·한희원), 예향갤러리(양수아·오승윤·오지호·임종두·진양욱·황영성), 원화랑(김상연·나명규·이정록·전현숙·정선희) 등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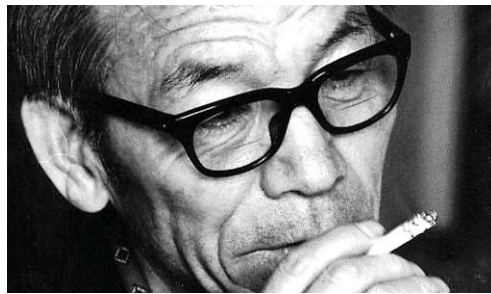
지난 2일부터 예술의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과 연계한 대체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예술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밴드를 비롯해 산드라 벨리 댄스, 다음의 그림자 퍼포먼스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만화 그리기, 비누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핸드프린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예술제 오픈식은 15일 오후 5시 중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열린다.

▲아트로드 프로젝트 ‘익숙한 거리, 신나는 예술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광주프린지 페스티벌이 오는 10월말까지 매주 금~일요일 열린다.

15일에는 민들레 소극장에서 ‘포연 콘서트’가 열리며 16일에는 자이, 게으른 오후, 블루스맨 등 젊은 음악인들이 예술의 거리 곳곳에서 공연을 갖는다. 민들레 소극장에서는 극단 토박이의 ‘상종



<고 배동신 화백>

공연도 진행된다. 17일에는 양철매미, 로드 스토리, 예상밖의 일주일의 공연이 이어진다.

22~24일 열리는 4차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창작뮤지컬 ‘위대한 유산’이 공연되며 투트머지, 제이매직, 문화공체 아우름, 김찬수 마임컴퍼니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29~30일에는 유기농 벤치, 9호선 환승역 등이 공연을 갖는다.

행사 기간중에는 기존의 골동품을 파는 재미 시장과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명의 아티스트가 개발한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개미시장 1+1’도 진행된다.

예술의 거리 고급화랑 2층에는 작가들과 상인, 예술의 거리를 찾는 이들이 어울리는 ‘프로젝트 카페 가미미’도 문을 열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금나팔’ 금관악기의 매력 속으로

빛고을 천원의 행복, 18일 영상문화관에서 공연

매월 세계 주 월요일 관객들을 찾아가는 ‘빛고을 천원의 행복’이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문화관에서 열린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금관악기의 세계 #1- 트럼펫 & 트롬본’. 실내악 시리즈 세번째 행사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황금나팔’ 금관악기의 매력을 보여주는 무대로 꾸러질 예정이다.

첫무대에 설 연주자는 트럼페티스트 김정태이다. 현재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직접 악기를 소개하고 시범 연주도 보여준다.

김씨는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 뢰블란의 ‘나를 일으켜 주네’ 등의 곡을 소개한다.

목직한 소리로 가슴을 울리는 트롬본 곡도 연주된다. 트롬본리스트 이경석씨가 무대에 올라 필모어의 ‘라수스 트롬본’,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만치니의 ‘문 리브’ 등 귀에 익숙한 곡들을 연주한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경자 화백 “받은 사랑 되돌려주러...”

19일부터 부산서 개인전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고흥출신 원로화가 천경자(87) 화백의 개인전이 부산에서 열린다. 천 화백의 개인전은 2006년 갤러리 현대에서 열었던 ‘내 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전 이후 처음이다.

미광화랑측은 미국 뉴욕에 있는 천 화백 측 가족의 연락으로 전시회가 성사됐다고 전했다.

김기봉 미광화랑 대표는 “미국에 사는 천 화백의 딸이 7월께 연락을 해왔다”라며 “과거 부산에서 사랑 받은 것에 대해 보답하는 차원에서 부산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천 화백은 지난 1952년과 1959년 부산에서 전시를 연 적이 있으며 특히 1952년 전시 당시 뱀을 그린 ‘생태’(生態)로 큰 사랑을 받았던 터라 부산에서 다시 전시를 열고 싶어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누가 물어’

전시작품은 40호 크기의 석채 작품인 ‘누가 물어’ 1과 다양한 소재의 드로잉 30여점으로, 모두 미국에서 보내온 것이라고 화랑측은 소개했다.

현재 천 화백은 딸 이혜선 씨와 함께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시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문의 051-758-224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러시아 푸시킨 극단의 정통무대

내일 공연예술제 폐막작 ‘폭풍’ 공연

‘러시아 정통 사실주의 연극을 만나다’ 러시아 리얼리즘 연극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2010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폐막작(16일 오후 6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으로 러시아 푸시킨 드라마 씨어터의 ‘폭풍’을 무대에 올린다.

러시아 작가 알렉산더 오스트로프스키의 1860년 원작을 극화한 ‘폭풍’은 불가리아 카리노프카라는 조그만 도시를 배경으로 무분별한 인간 욕망과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레프 에렌부르크가 연출한 ‘폭풍’은 2008년 황금마스크 페스티벌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세계 순회 공연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광주에서 초연 후 오는 21일~24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참가하게 된다.

푸시킨 드라마 씨어터는 1933년 모스크바 말리 극장이 후원으로 설립된 러시아의 대표 극단으로 이번 작품에는 표트르 에르마크프 등 10여명의 배우가 참여한다.

인터미션 시간을 포함해 러닝타임이 2시간 50분에 이르는 대작인데다 자막을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광주에서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러시아 연극이라



는 점에서 시도해 볼만한 작품이다.

에인에게 배신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카테리나, 질투심에 눈 먼 쿠드라시, 구시대적 인습에 갇힌 티혼 등 다양한 캐릭터가 복잡다단한 인간사의 모습을 그려낸다.

시소 처럼 무대 앞뒤로 오르내리는 판자와 거울, 물 등을 활용한 독특한 무대 장치도 공연 당시 많은 화제가 됐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62-511-12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학성적이 부진한 것은 100% 선생님 책임이다!!!

초등 4학년이상 노트필기 특수비법으로 중학수학 3개월에 끝내자

수학 못하는 것은 100% 선생님 책임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명강사인 오창영 선생은 “학생이 수학을 못하는 것은 100% 선생님 책임이다!”라고 학부모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수학선생님들이 성적에 책임을 100%지겠다는 각오로 혼신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는 수학강사들을 향한 쓴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라면, 철저한 교재연구와 강의연구는 물론,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어려워하는지 잘 알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신나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끄적 끄적 문제 푸는 요령 위주라면 가르치는 하위급 선생님이라면 점점 떨어지는 성적에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노개명수학 정회원 엄마들은 중간고사 이든 기말고사이든 성적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만 보고 나면 행복해집니다. 왜일까요?

노트필기특수비법으로 성적에 기적!

혹시...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만 바뀌거나, 노트필기 방법만 바뀌어도 10~30점 올라가는 것은 물론, 풀짜들도 알라든지 상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우등생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특수학습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수학 상위권학생들의 고득점 비법은 명 강사들과 ‘노트필기학습법’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WHY? HOW?를 중시하는 학습법

상위권들에게 갈수록 인기를 얻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답보다는 WHY? HOW?를 통해 과정을 중시하는 노개명 학습법입니다. 노트필기 학습법은 서술형 출제 비중이 높아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학습법입니다.

최강의 명 강사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노트필기 특수 교수법 강의는 상위권들은 물론, 수학성적 부진으로 자신감을 잃고 중도포기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막혔던 곳을 시원하게 한방에 풀어주는 명 강의!하면 할수록 수학공부의 깊은 맛을 알게 하는 환상적인 명 강의! 고민 끝에 노개명수학을 선택하여 수개월 앞서간 엄마들은 성적고민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집에서 3개월에 중학수학 끝내주세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중학수학을 3개월에 끝낼 수 있을까요? 학교수업이나, 동네 학원수업에 실망이 크셨다면,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노개명수학의 정회원들은 믿습니다. 개념원리중심으로 영역별 주제별 노트필기특수비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초등4학년 이상 자녀가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노개명수학을 선택해주세요.

지금 무료 샘플교재를 신청하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나오는 노개명수학의 신문광고, 이미 노개명수학은 초,중학생을 전문 수학명문회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학생들과 엄마들이라면 노트필기학습법이 좋다는 걸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트필기 특수학습법을 잘 모르시거나, 노개명수학에 대하여 궁금 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무료샘플교재부터 신청해 보세요. 아마 샘플교재를 받아 보시는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진작시킬걸 그랬어” 어머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 부담없이 무료샘플교재부터 받아보신 후 결정하세요.



샘플교재 무료신청하세요! 선착순 300명 1566-7155

오창영 노리수학 저자 / 강사 오창영선생 (세계최고 특수비법 개발자)